

‘먹튀’ 희생양 될까... 맘스터치 직원, 민노총에 ‘터치’

사모펀드 회사매각... 임직원 ‘불안’



해마로푸드 회장 지분 57% 처분
케이엘앤파트너스 인수 마무리
사모펀드 매각 반대 노조 설립
“비용 줄이고 재매각 나설 것 뻔해”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맘스터치가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되며 현장에서 일하는 본사 직원과 가맹점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은 보유 지분 57.85%

(5637만여 주)를 사모펀드에 처분하고 경영권을 넘겼다. 케이엘앤파트너스는 지난달 YG인베스트먼트와 IBK캐피탈이 보유하던 해마로푸드서비스 지분(554만3822주)까지 장외에서 사들여 해마로푸드서비스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 결정에 반발한 해마로푸드서비스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노동조합 산하 해마로푸드서비스 지회를 설립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노조가 설립된 것은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가 최초다. 노조 설립은 맘스터치가 사모펀드로 매각되는 것이 결정되면서 촉발됐다. 직원들은 매각 과정에서 정현식 회장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입장을 듣기를 기다렸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다.

당시 맘스터치 전국지사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익 극대화가 속성인 사모펀드 운용사가 선임하는 경영진과 가맹점과의 상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상상하기 힘들다”며 “당장 비용을 줄이는 한편 추후 매각을 위해 기업가치 극대화에만 몰두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 측은 “고용 안정에 있어 명문화는 됐지만 임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 측은 “임금 교섭의 경우에는 회사 대표 노조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것으로 노조 명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로 인해 가맹점 운영 등

에서는 일말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오히려 코로나19 등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에 단계별 지원책을 펼치며 상생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들이 식음료 프랜차이즈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사업 구조가 단순해 단기간에 수익성을 올리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식음료 프랜차이즈는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사모펀드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혔다. 최근에는 인건비나 임대료가 올라 수익을 낸 후 매각하는 것, 즉 엑시트 난이도가 상당한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업계는 사모펀드가 재매각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면 인력이

나 비용을 감축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 임직원의 고용 불안,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주인이 되면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은 이점”이라면서도 “그러나 확실성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아 회사가 성장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들어오는 것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용 감축은 임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일으키고 주인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주의 신뢰를 쌓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롯데중앙연구소, 바이오제네틱스-위드바이오코스팜 MOU

3자 파트너십 구축... 식물성 대체육 개발

보유한 역량·자원 활용 개발 협력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 가치 추구

롯데중앙연구소는 ‘식물성 대체육 연구 개발’을 위해 바이오제네틱스-위드바이오코스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향후

식물성 기반 대체육을 이용한 가공식품 시장의 성장성 및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대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자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체육 개발을 원활히 추진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보

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경환 롯데중앙연구소 소장은 “이번 업무 협력을 통해 건강·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급성장 하고 있는 식물성 대체 식품 분야에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친환경,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트레일블레이저’, 소비자 호감도 1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신차 호감도조사
긍정률 가장 높고 부정률은 가장 낮아

한국지엠이 지난 1월 전략 차종으로 출시한 ‘트레일블레이저’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네시스 GV80은 대형 SUV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2일 제네시스 GV80·한국지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요타 ‘GR 수프라’ 등 신차 3종에 대한 1~2월 호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채널은 ‘커뮤니티,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6개 채널이다.

조사결과 제네시스 GV80 정보량이 1월 1만1616건, 2월 5870건, 1~2월 합계 1만7486건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1월 2580건, 2월

1811건으로 합계 4391건, GR 수프라는 1월 892건, 2월 603건으로 합계 1495건을 기록했다.

2월들어 소비자 관심도는 트레일블레이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1월에 비해 2월 들어 소비자 관심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차종은 제네시스 GV80으로 49.46%나 급감했다. 한달새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 셈이다.

소비자 호감도 1위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차지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긍정률은 32.66%로 3개 차종중 가장 높았고 부정률은 9.16%로 가장 낮았다. 반면 제네시스 GV80의 긍정률은 21.67%로 3개 차종 중 가장 낮았으며 부정률은 15.98%로 가장 높았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수치인 순호감도는 트레일블레이저 23.50%, GR 수프라 14.18%, 제네시스 GV80 5.68% 순이었다.

/양성운 기자 ysw@

AI 로봇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들... 시장 규모 年 평균 29% ↑

2024년 시장 1220억 달러 전망
“사람은 더 가치있는 업무에 집중”

국내외 로봇 개발업체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 개발에 주력하면서 관련 시장이 연 평균 29% 성장률(수량 기준)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2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310억달러(약 37조1000억원)에서 2024년 1220억달러(약 146조300억원)로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로봇은 크게 전문 서비스용, 개인 서비스용으로 나뉜다.

전문 서비스 로봇은 배송·물류 로봇, 의료 로봇, 매장이나 공항, 건물 로비, 식당 등에서 접하는 안내·홍보(PR) 로봇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전문 서비스로봇이 70%(약 220억 달러)를 차지했고, 2024년 78%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PR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5억5000억달러에서 2024년 75억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 서비스 로봇 중 가장 큰 시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로는 LG전자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빙스 등에서 선보인



LG전자와 CJ푸드빌이 지난 31일 제일제면소 서울역사점에 ‘LG 클로이 서브봇’을 선보였다.

/LG전자

서빙로봇 등 PR 로봇이 꼽힌다. 또 배달 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서빙로봇을 서울 송파구의 이탈리안 음식점 메리코키친 등 전국의 유명 식당에 대여해 운영하고 있다.

배송·물류 로봇 분야에서 우아한형제들은 사내 자율주행 배달로봇인 ‘딜리타워’를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도 회사 건물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국대에서 캠퍼스 배달로봇에 대한 시범 운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최근 LG전자와 최근 배달 및 서빙로봇 공동 개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

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0’에서 사용자를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집안 관리를 수행하는 로봇인 ‘볼리’를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개인 서비스 로봇은 로봇 청소기, 잔디깎이 로봇 등을 들 수 있으며, 시장 규모는 지난해 96억달러(11조5000억원)에서 2024년 270억 달러(32조3300억원)로 연 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로봇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이 맡고,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업무를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현대상선, 잠수로봇이 선체 클리닝 ‘썩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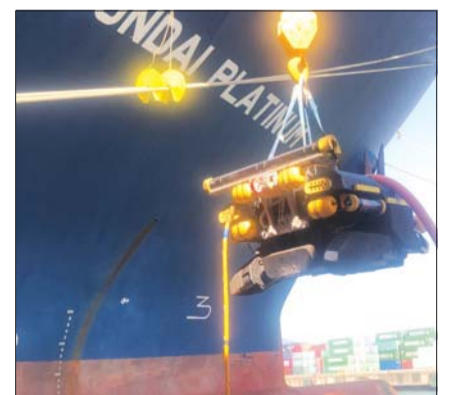
선박 하부 표면 청소 등 진행

현대상선이 환경오염 방지와 비용절감을 위해 운항중인 전 선박의 선체 클리닝 작업을 잠수로봇으로 대체한다.

2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국내 잠수로봇 전문회사인 타스글로벌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잠수로봇을 활용해 선박의 하부 표면 청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박 운항 중 선체 하부에 각종 따개비, 해조류, 외래종 식물, 이끼 등이 달라붙게 되면 마찰력이 높아진다. 그만큼 운항 속도가 떨어지고, 연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선사들은 정기적인 선체 하부 클리닝 작업을 진행해 연료 효율성 향상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차세대 친환경 잠수로봇을 도입하면서 수중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한



5000TEU급 컨테이너선 ‘현대 플래티넘호’의 선체 클리닝을 위해 잠수로봇이 투입되고 있다.

경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수로봇으로 작업할 경우, 본체와 연결된 여과시스템을 통해 잔해물을 육상 정제 시스템으로 옮겨 처리한다. 따라서, 외래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